

'82년 양돈경기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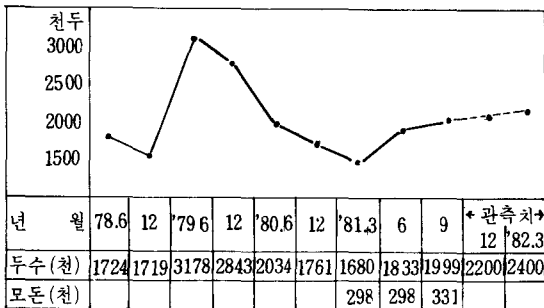


내년 3월 이후 불황예상

내년 3월 적정두수 넘어설 듯

농수산부에서 발표한 81년 9월말 돼지사육 추세를 살펴보면, 전체 사육두수는 6월말 1백 83만 3천두에서 9월말에 1백99만9천두로 석달동안에 9%의 증가를 보였으며, 모돈 역시 '81년 6월말 29만8천두에서 9월 33만1천두로 11%나 크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돼지 두수 추이



위 통계에서 9월말 모돈수가 이미 적정수준인 30만두를 넘어섰으며 그것도 불과 석달동안에 11%나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이미 내년 봄철 이후 양돈경기가 불황으로 빠져들 것으로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지난 11월초 축협중앙회에서 실시한 양돈농가에 대한 장래 사육의향 조사에 의하면 모

돈의 경우 내년 3월에는 9월보다 13%를 더 늘릴 계획으로 나타났고, 전체 사육두수는 9월보다 20~25%를 늘릴 계획으로 분석됨으로써 내년 3월 이후 돼지두수는 적정 사육두수인 2백 30만두를 넘어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내년 3월 이후 양돈불황 예상

이와 같은 돼지 사육두수의 급증 추이를 통해 볼때 내년 3월 이후 양돈경기는 생산비 수준 이하의 불황기에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내년도의 불황조짐은 돼지사육두수의 급증 측면에서 뿐 아니라 오래전부터 세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양돈경기의 주기변동에 의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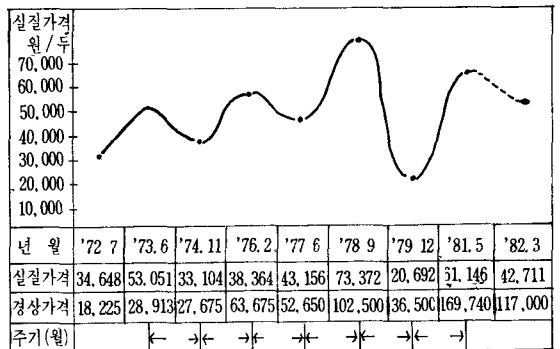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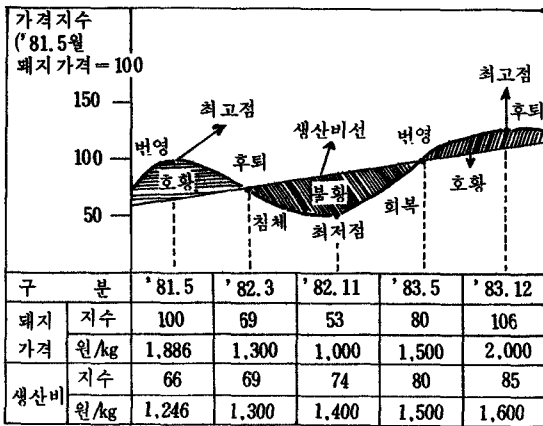


표 3. 양돈경기 전망내역(양돈경기 사이클)



우리나라의 돼지가격은 대략 30~32개월의 주기변동을 보이고 있는 바, 이에 의한 돼지가격 변동 추이를 보면 80년 1월부터 지속된 돼지가격 상승세는 이미 지난 5월에 최고점을 형성한 후, 6월부터는 후퇴국면에 접어들어 명년 3월 이후에는 생산비 수준이하의 불황기로 빠져 들어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모돈 감축, 현 보유두수 유지요망

현 시점에서 내년 3월 이후에 예상되는 양돈 불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대책은 양돈농가 스스로가 적정 사육두수 유지에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는길 밖에 없을것 같다.

지금부터라도 9월수준의 모돈수를 기준으로 하여 전 양돈가가 10%정도의 모돈을 줄이고 전체 사육두수를 현 수준에서 유지만 해간다면 내년의 양돈 불황을 최소화 하면서 넘길수 있겠으나, 앞서 농가 사육의향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또는 6월이후의 모돈 및 사육두수 증가추세와 같은 추세로 돼지두수를 증가시켜 나간다면 내년의 일반 경기 역시 현재의 불황이 계속될 전망이다라는 점을 감안할때 79년과 같은 혹심한 양돈 불황을 격지 않을까 우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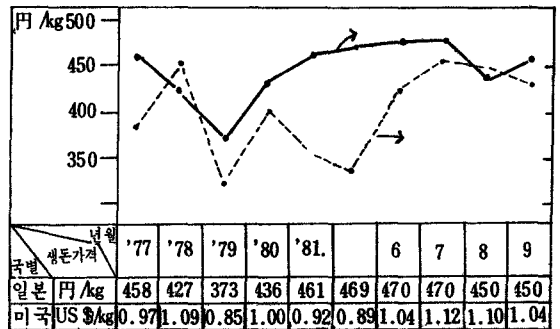
설령 정부차원에서 내년도 불황기에 돼지가격 회복을 위해 수매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축시설이나 자금면에서 크게 제한을 받기 때문에 양돈가가 기대하는 수매물량이나 가격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양돈경기의 주기 변동에서도 언급한 바 있으나, 최근 양돈경기의 변동양상은 세계적으로 비슷한 추이를 보여 금년 하반기 이후 양돈경기는 공통적으로 후퇴기에 들어서 내년도 해외양돈경기도 불황의 조짐을 나타내고 있는바 내년도 국내 양돈경기 회복을 위한 해외수출역시 곤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다.

양돈농가에서는 79년도의 깊고 길었던 양돈불황의 쓰라린 경험을 거울삼아 지금부터라도 현재의 모돈수를 6월 수준으로 줄이고 더 이상의 돼지두수 증식을 억제하여 내년도에 예상되는 양돈불황 극복에 공동대처해 나갈것을 축협중앙회에서는 당부하고 있다.

표 4. 해외 돼지가격 동향



「축산정보」 81. 11. 30.